



소개

에트모스 디자이너 568

바이 마크 뉴슨

저명한 디자이너의 손길로 재해석된 아이코닉한 *예술 작품*,
시간의 정수를 담다

주요 특징:

-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캘리버 568**: 투명한 바카라 크리스탈 케이스 안에서 드러나는 색다른 모노크롬 팔레트
- 보다 탁월한 **천체 컴플리케이션**: 일출 및 일몰 인디케이터와 균시차를 결합하고 특정한 위도(30° , 40° , 50°)에 맞춰 정교하게 조정해 시적으로 재해석한 시간
- **독보적으로 정밀한 달의 위치**: 4,087 년이 지난 후에야 단 하루의 오차가 발생할 만큼 탁월한 정확성을 자랑하는 문페이스
- **마크 뉴슨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작품**: 아이코닉한 디자이너의 협업을 이어가며, 독특한 비전을 통해 시간 측정과 디자인의 조화를 재해석한 최신 제품

2026 년, 예거 르쿨트르는 저명한 산업 디자이너 마크 뉴슨과의 협업을 통해 에트모스 캘리버 568 을 재해석합니다. 새로운 컬러 팔레트가 돋보이는 클락은 마크 뉴슨이 2016 년 처음 선보였던 클락의 후속 버전으로, 오리지널 모델에 일출 및 일몰 시간, 균시차, 탁월한 정밀성을 자랑하는 문페이스 디스플레이와 같은 기능을 추가해 완성되었습니다. 새로운 모던 아이콘은 2026 년 4 월 21 일부터 26 일까지 진행되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에 예거 르쿨트르 에트모스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공기를 동력 삼아 이루어지는 경이로운 영구 운동

1928년 스위스 엔지니어 장 레옹 휘테가 개발하고 르쿨트르 & 씨(현 예거 르쿨트르)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독특한 메커니즘을 갖춘 애트모스는 인간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별도의 와인딩이나 외부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기의 힘으로 작동하는 클락'으로 알려진 애트모스는 주변 온도의 미세한 변화에서 에너지를 얻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작동합니다.

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어 밸런스 휠을 움직입니다. 핵심은 밀봉된 가스 캡슐에 있으며, 얇은 멤브레인을 통해 태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에도 기체의 부피가 변하면서 멤브레인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아코디언처럼 작동하며 태엽을 감고, 그 결과 극소량의 에너지로도 밸런스 휠이 1분에 한 번씩 왕복 진동하게 됩니다. 섭씨 1도의 온도 변화만으로 클락을 약 이틀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애트모스 메커니즘은 이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독창적인 구조를 지니게 되었고, 이는 초기부터 클락의 정체성을 만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독보적인 정체성을 지닌 애트모스는 예술적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이상적인 캔버스였으며, 예거 르쿨트르는 1970년대부터 여러 선구적인 디자이너 및 전통 공예 장인과 협업하여 그들만의 고유한 스타일로 클락을 재해석해 왔습니다.

마크 뉴슨과의 새로운 협업

예거 르쿨트르와 호주 출신의 산업 디자이너 마크 뉴슨은 2008년부터 협업을 이어 왔으며, 서로의 전문성을 결합해 뉴슨이 “복잡하고 마법 같은 오브제”라 묘사한 애트모스를 고유의 시선으로 재해석합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협업을 통해 2008년의 칼리버 561, 2010년의 칼리버 566, 2016년의 칼리버 568 등 다양한 칼리버가 탄생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작품 활동으로 유명한 마크 뉴슨은 10대 초반 애트모스를 처음 본 순간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애트모스의 특성에 주목한 그는 오브제 본연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보존하면서 정교한 디자인에 변화를 더합니다. 마크 뉴슨은 예상을 뛰어넘는 소재를 활용하며 기술적인 관습에 도전합니다. 아날로그 오브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의 비전은 기능과 형태 모두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작품, 즉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향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투명한 디자인, 가벼운 무게, 탁월한 정밀성

독특한 시각적 정체성: 마크 뉴슨은 애틀모스 디자이너 칼리버 568 을 투명성과 정확성을 구현하는 작품으로 설계했습니다. 본질만을 남긴 디자인은 가벼운 무게, 투명한 디자인, 탁월한 가독성을 강조하며, 수공 제작된 바카라 크리스탈 케이스 안에서 자유롭게 떠 있는 무브먼트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2026 년 버전에서는 클락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능과 독특한 시각적 정체성을 더했습니다. 모노크롬 팔레트는 일출 및 일몰 인디케이션과 균시차 디스플레이를 형성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을 강조하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크리스탈은 이와 같은 디자인에 단연 걸맞은 소재입니다. 그 본연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마감에 매료된 마크 뉴슨은 크리스탈을 이번 프로젝트의 소재로 선택했습니다. 1764 년 설립된 유서 깊은 프랑스 크리스탈 제조사인 바카라는 마크 뉴슨이 구상한 캐비닛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극소수의 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케이스는 둥근 모서리를 지닌 사각형 형태로, 서서히 녹아내리는 얼음을 연상시킵니다. 완전한 투명성과 섬세한 외관과는 대비되는 구조적 안정성을 구현하여, 메커니즘의 무게를 지탱할 만큼 탄탄합니다.

정교한 기술적 성능: 약 4 년에 걸친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완성된 케이스는 캐비닛 내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분리가 가능한 글라스 시트를 제외하고, 입으로 직접 붙여 만든 단일 크리스탈로 제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일부 구간의 두께는 13mm 에 불과할 만큼 얇으며, 블로우 작업 후 붉게 달궈진 크리스탈을 양면 몰드에 대고 정밀하게 윤곽을 성형하며 냉각 처리를 제어하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구조: 클락 구조의 핵심인 크리스탈은 무브먼트가 케이스 내에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시 현상을 연출하는 동시에 이를 지탱해야 하므로, 탄탄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클락 뒷면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무브먼트의 부착 지점은 기존 애틀모스 클락과는 달리 그 수가 3 곳에서 4 곳으로 늘어나, 대칭을 형성하고 아름답게 마감된 부품들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칼리버 568 의 다이얼은 블랙 톤 사파이어 크리스탈 디스크 위에 프린트된 화이트 컬러의 아라비아 숫자 및 미닛 트랙으로 가독성을 극대화합니다. 월은 내부 원 위에 프랑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컴플리케이션의 디스플레이는 깔끔함이 돋보이는 것은 물론, 하나의 예술 작품에 깃든 정교한 기술적 요소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월과 시간 사이에 동심원 링으로 자리한 일출 및 일몰 시간은 사파이어 크리스탈 디스크 위에 표시되어 있으며, 각각 디스크 가장자리의 작은 화살표로 시간을



알려줍니다. 현재 평균시와 진태양시의 차이를 의미하는 균시차는 바늘축으로 감싸인 타원형으로 구현되었으며, 이 바늘축이 눈금 위에서 움직이며 분 단위로 정확한 시차를 표시합니다. 이번 컬렉션은 각각 30°, 40°, 50°의 위도를 보여주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세 가지 특별한 애프토스 클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특별한 리미티드 생산: 전 세계에서 연간 단 50 피스만 리미티드로 생산되는 각 타임피스에는 정밀한 '균시차'와 함께, 지정된 위도에 맞는 정확한 일몰 및 일출 시간을 우아하게 표시합니다. 매끄럽게 마감된 디스크의 6 시 방향에서 문페이즈를 확인할 수 있는 한편, 리미티드 생산되는 클락의 균시차와 일몰 및 일출 시간은 각 타임피스의 지리적 위도에 맞추어 정밀하게 측정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들은 4,087 년마다 단 하루의 오차만 발생할 만큼 경이로운 수준의 정확성을 구현해 냈습니다. 별도의 조정 없이 계속해서 작동하는 경우 애프토스는 4,087 년 내내 정확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서머타임을 시행하는 국가로, 해당 국가에서는 연간 2 번 타임피스를 조정해야 합니다.

마크 뉴슨의 비전과 그랑 메종의 아틀리에가 만나 물리적인 시간을 거슬러 영원히 움직이는 클락으로 시간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시대를 초월한 *예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투명한 아름다움과 섬세한 간결함이 돋보이는 애프토스 568 바이 마크 뉴슨은 영원히 흘러가는 시간을 무한히 감상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상세 정보

애프토스 디자이너 칼리버 568 바이 마크 뉴슨

크기: 147 x 230 x 265mm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568

진동수: 60 초마다 2 회 진동

기능: 시간, 분, 월, 일출/일몰, 균시차, 고정밀 문페이즈(4,087 년마다 하루 오차)

캐비닛: 입으로 불어 수작업으로 제작한 바카라 크리스털

다이얼: 글라스



레퍼런스: Q516511J, Q516512J, Q516513J

매년 고유 번호가 부여된 50 피스 한정 생산

마크 뉴슨 소개

마크 뉴슨은 동시대를 대표하는 산업 디자이너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기술과 조각이 어우러지는 지점, 즉, 정밀함이 움직임을 만나고 기능이 형태가 되는 지점에서 오브제를 창조해냅니다. 그의 작품은 유려한 라인, 정교한 소재, 디테일에 대한 집요함이 특징입니다. 마크 뉴슨은 과감한 단순함과 첨단 엔지니어링을 결합한 *아방가르드* 디자인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항공, 자동차, 기술, 럭셔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브랜드들과 협업해왔습니다. 그의 철학은 혁신과 장인 정신이 하나로 어우러진 예거 르쿨트르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뉴슨은 애틀모스와 메모박스 같은 아이콘들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것을 덮어쓰기보다는 그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기계적인 정체성을 보존한 채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를 도입하여, 과거와 현재, 기억과 창조 사이를 잇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마크 뉴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와의 협업은 여전히 꿈만 같습니다. 호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예거 르쿨트르를 깊이 동경해 왔습니다. 예거 르쿨트르가 탁월하고 일관된 디자인 유산을 이어가며, 혁신을 향해 끊임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평생 타임피스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예거 르쿨트르와 여러 차례 협업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2008년부터 애틀모스를 아름답게 재해석한 작업은 메종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에서도 매우 특별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애틀모스 소개

1928년에 탄생한 애틀모스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클락입니다. 기존의 에너지원이나 와인딩 없이도 수 세기 동안 작동하여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발명품입니다. 애틀모스의 메커니즘은 일상적인 온도의 변화로 인해 구동됩니다. 섭씨 1도의 변화만으로도 약 이틀간 작동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매뉴팩처의 위치메이킹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성능을 발전시켰고, 마침내 애틀모스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애틀모스 II의 아르데코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글라스



큐브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거 르쿨트르는 유명 디자이너 및 장인과 협력하여 특별한 애프트모스 에디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들이 탄생합니다.

jaeger-lecoultre.com